

‘인문학 독서토론’ 교과목의 방향과 운영

- 숙명여대의 읽기,쓰기,말하기 통합교육 사례

2009. 03. 02. (월) | 신상규 · 이황직(숙명여대)

I. 인문학에 대한 성찰.

‘인문학의 위기’ 담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인문학 교육의 기원이자 항구적인 준거점으로 인식되는 중세 대학의 정립기와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쉽게 드러난다. 뒤르케임(Emile Durkheim)이 「프랑스에서의 교육 발달」(L'Évolution pédagogique en France)에서 언급한 자료를 보자. 당시 유럽 대학에는 네 개의 학과가 존재했는데, 그 시기 ‘전문 직업 교육’에 해당하는 신학, 법학, 의학과 달리, 인문학에 해당하는 ‘교양 교육’(arts faculty)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였다. 학과별 교수 숫자를 보면 더욱 확인한데, 1348년 기준으로 교양 교수가 514명이었는데 반해, 신학은 32명, 법학은 18명, 의학은 46명에 불과했다. 전체 교수의 5/6가 인문학 계열 교양 교수였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양 교수의 지위는 당연히 열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 자료에 기초해 보면, 현재 인문학이 위기라는 담론은 사실상 근대 대학의 팽창기에 우연히 격상되었던 인문학의 지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에 대한 거부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인문학이 언제나 낮은 보상 체계에 만족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당장의 이해타산에서 비켜 서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것은 인문학의 자율적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 인문학 위기의 실상은 연구비 부족 같은 경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이 담당할 교육적 사명의 변화를 기존 대학내 교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제 인문학은 그 분야 개별 학문의 전문성을 보존할 제도적 활동은 물론이고, 동시에 인문학은 대학내 모든 전문 직업 교육(학부 고학년에서 전문대학원까지)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지성인으로서의 기초 능력과 교양을 제공하는 교육, 곧 교양교육으로서의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단계로 진입하였다. 지난 10년간 인문학 학과의 제도적 위기는 이제 교양교육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통해 새로운 기회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에서 개설된 교양과목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세부 학문 분과의 개론 과목들로서 각 분과영역의 핵심 지식과 주요 이론들을 정리하여 가공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수강하는 학생들도 이 과목들을 단순한 암기과목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방식의 개론 과목들은 학문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같은 과목의 목록들은 늘어나겠지만, 양적으로 풍성해질수록 배움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관성이 대학을 지배하게 된다.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기초 능력에 대한 무관심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분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학, 철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개론 과목에서도 학문별 제도화의 정도가 깊어지면서, 교양교육의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전공 분야의 수강생 숫자를 늘리려는 이기적 경쟁이 심화되었다.

서양교육의 역사와 현재 미국과 유럽의 교양교육 개혁의 방안들을 검토해 볼 때, 교양교육의 목적

은 단순히 문학, 역사, 철학에서 논의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공 위주의 전문교육이 '교양교육의 독자성'을 간섭하게 될 때, 교양인문학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 교육이 위축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전문교육 단계에 진입한 학생들의 학문적 능력이 감퇴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숙명여자대학교의 기초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소통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교양심화과목으로서 '인문학 독서토론' 과목을 개설하였다. 고전 강독, 독서토론, 연구논문 쓰기과 발표회 등을 종합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매시간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을 실습을 통해 훈련받고, 이 과정에서 고급 독해능력, 비판적 사고력, 설득력 있는 표현력을 배양시킬 것이다.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본문과 부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문학 독서토론' 과목의 성격과 체계.

'인문학 독서토론'은 기존의 지식 전수 교육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생들이 교양인문학의 정수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문제시되는 보편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흥미롭게 인문학적 사유방식을 계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중심의 학습 방법이다. 능동적 독서와 독서토론, 그리고 문제해결적 논문 쓰기와 논문 발표회를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인간과 삶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탐색을 시도하는 인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과목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성격

본 교과목은 인문·사회의 개별 교과를 가로지르는 문제 상황에 대해 학생 스스로 문제파악 및 문제 설정을 수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독서토론을 조직하여 지식 형성 능력을 심화시키며, 최종적으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에세이(논증글)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과목은 ①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등을 융합한 통합 교과목의 성격을 띠고, ② 특정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보편적 주제들에 대한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다.

(2) 교육 체계

본 교과목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통합적 학습활동을 통해, 인문학 교양교육의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체계를 갖출 것이다.

① 인문학의 기본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를 바탕으로 그 문제의식과 사유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성적으로 고찰한다. 본 교과는 철학, 문학, 역사, 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주제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고, 문학이나 철학, 사회학 등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읽기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②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달성되고 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서토론과 주제별 에세이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인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주제별로 작성된 논문 중에서 1편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확장한 본격적인 학술 논문 1편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발표 할 수 있게 한다.

(3) 강의 운영 방식

이 교과목의 강의 운영은 주로 문제파악을 위한 토의, 독서토론, 세미나 및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본교의 1학기 15주 수업체제를 기준으로 한 본 교과목의 기본 골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팀 티칭 : 본 교과목은 3~4인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센터 교수진에 의한 팀 티칭을 기본으로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교수가 참여하는 공동수업의 형태를 취한다.

② 학생 중심 수업 : 토의, 독서토론, 논증 에세이 작성

- 첫 2~3주는 각 영역별 문제 접근의 방식, 독서토론 모형에 대한 소개와 논증적 에세이 작성의 요령을 숙지시키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삼는다.

- 이후 3~4주 단위로 한 주제를 독서토론 중심으로 운영한다.

- 매 학기 3~4개의 주제를 다룬다.

③ 주제 중심 쟁점토론 수업 : 인문/사회 분야의 보편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학기당 대략 3~4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다룬다. 각 주제별로 문학, 철학, 역사, 사회학 등에서 선택된 발췌 텍스트와 학생들이 직접 읽어야 할 2~3권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3~4주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12주에 걸쳐서 3~4개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독서 텍스트는 가능한 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pro vs con)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들로 제시하고, 최종적인 입장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④ 교수/학생 쌍방향 토론 : 주제별 수업은 먼저 발췌 텍스트와 관련된 해당 전공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다른 영역을 전공한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각자 자신의 전공 관점에서 활발하게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을 직접 참관할 기회를 갖게 되고, 텍스트 및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해당 주제와 연관된 발췌본을 먼저 읽고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단행본 고전들을 직접 읽고 그 책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독서토론은 학생들이 스스로 논제를 설정하고 그 적합성을 검토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⑤ 수업 후 활동 피드백을 통한 능력 신장 활동 : 독서토론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주제별 비판적 에세이를 작성하고, 담당 교수는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주제별로 에세이를 심화시켜 논문 발표회를 갖는다.

III. '인문학 독서토론' 과목의 운영.

본 과목은 인문학 텍스트 및 주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해능력 및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인문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시간이나 수업 시간 이후 과외로 이루어질 여러 학습 활동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담론의 수준에서 통합적 인문학 교양과목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수법 및 학습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목의 실제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텍스트 선정

① 주제 및 텍스트 선정의 기본 원칙과 목록

모든 텍스트는 해당 주제에 대하여 저자(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펼쳐낸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독서토론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 및 텍스트 선정의 원칙을 수립하고, 실제 사회적 또는 학술적 쟁점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수업 주제로서 우리가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 국가, 자유와 공동체, 법과 정의(관습과 윤리), 과학과 종교, 자연과 문명, 개발과 환경, 세계화와 민족, 대중문화와 예술, 성과 여성, 전통과 합리성, 노동과 자본, 가치(규범)와 사실. 매 학기 위 주제 목록 가운데 3~4개씩을 다룬다.

② 수업 주제에 따른 선정 텍스트 예시

위 주제 목록 중 '개인과 국가'라는 주제를 선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텍스트(발췌문과 단행본)를 직접 읽고 토론하게 한다. 발췌문은 발제자 중심의 토의로, 단행본은 독서토론으로 진행한다.

발췌문 1: 존 로크, [통치론](까치, 2007), 서론, 1장, 4~9장.

발췌문 2: 하이예크, [노예의 길](나남, 2006), 일부분.

단행본 1: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한길사, 1997), 1권.

단행본 2: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한길사, 2006), 2권.

추천도서: J.S. 밀, 「자유론」, 롤즈, 「정의론」, 장하준, 「국가의 역할」,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2) 사유 훈련에 적합한 읽기 모형의 개발

① 수업용 워크북 제작, 워크북에서 주제 선정 취지 제시

- 주제별로 주제의 선정 취지를 간단히 제시하고, 문학, 철학, 사회학 등에서 바라보는 문제의 성격이나 입장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② 기본적인 이론 및 사유 방법 소개

- 워크북에서는 또한 각 학문 영역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사유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며, 발췌된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유 방식을 체험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사유훈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사유 방식이나 분석 방법을 정보적인 형태가 아니라, 절차적인 과정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발문이 요구된다. 본 교과목의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발문의 원리 및 실제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텍스트 읽기 모형의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예시 : '자유와 공동체'라는 주제에 대한 취지 및 기본 시각 소개

○ 워크북의 '자유와 공동체' 부분 취지/시각 안내문

(가) 생활세계와 연관된 문제의식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 학내 종교행사에 불참해도 되는가?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를

허용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국가는 대학 입시에 개입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인가? 이러한 갈등 양상의 목록은 우리 사회가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자유의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가 이제 법전 바깥으로 걸어 나와 실체로서 개인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 문제의 배경과 기본 입장 소개

그동안 한국 사회는 치마와 머리카락에까지 가위를 들이대는 권위주의적 지배에 저항하면서 자유를 열망하여 왔다. 민주화란 곧 자유의 확대라는 믿음이 지배하던 시대에 자유의 실현은 지상의 가치였다. 그런데 '구체제'로서 군사독재 시대의 저항 이념이었던 자유가 1987년 이후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 급진적인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적인 자유자본주의 이념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공동체의 실제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행위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자본주의자들은 주로 경제 영역에 치중하여 '사적 재산권의 자유', '자유 경쟁'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분화는 자유의 이념이 이중적인 기원을 가진 결과물, 다시 말해 구체제에 맞선 계몽주의 운동의 결과물로서의 개인적 자유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상공인 계급이 국가 개입에 맞선 결과물로서 얻어낸 경제적 자유가 우연히 결합한 것임을 알 때 더욱 분명해진다.

자유주의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과 행위의 주체로서 이성의 자유로운 능력에 의해 자신의 의식을 외부 세계에서 실현시킨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에 의해 목적을 정립하는 과정에 이미 인간의 사회성은 깊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공동체주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 인간다움은 오직 공동생활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전제를 제시한다. 천부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 삶의 토대로서의 공동체 질서, 우리는 이 두 주장을 각각 자명한 진리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개인과 공동체가 화해하는 순간은 늘 잠정적이었을 뿐, 사회 변동의 시기마다 문제 상황은 더욱 누적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자유와 공동체의 문제는 1980년대 들어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공동체주의'의 등장으로 이론적 논쟁에 불이 붙었고, 1990년대 들어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그 이론적 바탕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다) 탐구 쟁점 소개 및 의의 안내

이러한 문제 현상을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라는 제목 하에 묶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공동체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간섭할 수 있는가?', '시민적 자유의 적은 시민 자신인가?',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변형을 약속하는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 '자유경쟁은 국가를 번영시키는가?', '국가의 경제개입은 시장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자유와 자유가 충돌할 때 보다 우선되는 자유는 무엇인가?', '사적 자유와 공공의 이익과 갈등할 때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가?'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갈등 양상의 근원의 축을 우리는 자유와 공동체의 대립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 윤리간의 충돌,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관습과의 갈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투쟁, 국가와 기업 간에 규제와 경쟁을 둘러싼 이익 갈등, 성장주의와 생태공동체의 가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분석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자유와 공동체의 기본 원리를 고전 읽기를 통해 근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그 원리와 방법이 우리 사회의 현실적 조건 속에서 갖는 함의를 되새겨 실천적 합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교과 운영 방법으로서의 독서토론

워크북의 발췌 텍스트와 여러 학습 활동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이해가 달성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독서토론이다. 학생들은 주제별로 선정된 단행본들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독서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워크북에는 독서토론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표1>의 독서토론 모형은 본 센터가 이미 2006년부터 개발해서 수업과 대회용으로 활용해온 것으로서, 교수가 논제를 던지지 않고 학생 스스로 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논제를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2인 1팀으로 구성된다.

<표 1> 개방형 논제제시 독서토론 모형

단계	주요 활동	총 소요 시간 (팀별 제한시간)	비고
도입	요약 및 논제 제시	6분 (3분)	각 팀 <갑>, 발언 1회
	논제 설정	4분 (2분)	각 팀 <을>, 발언 1회
	숙의	2분	* A팀 논제가 1논제, B팀 논제가 2논제 * 논제 부적절시, 교수가 준비한 논제로 대체
제1 논제 토론	토론	12분 (8분)	자유 진행
제2 논제 토론	토론	12분 (8분)	자유 진행
논제 심화	(심화논제 제시)	1분	(교수가 제시)
	숙의	2분	* 제시한 논제에 대해 팀별로 숙의함
심화 논제 토론	토론	12분 (8분)	자유 진행
최종 발언	토론 정리	4분 (2분)	각 팀 <갑>, 발언 1회

<표1>에 제시한 것처럼,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참가자) 스스로 해당 저서에서 논제를 찾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게임에 나서는 두 팀은 '도입'의 '논제제시' 단계에서 해당 저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각각 두 개의 논제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다음 '논제설정' 단계에서 각 팀은 상대방이 제시한 두 개의 논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논제는 각 팀 당 한 개씩, 모두 두 개가 남게 된다. 이를 각각 1논제와 2논제로 지정해서 단계별 토론에 들어간다. 두 논제 토론이 끝난 다음, 교수는 준비한 심화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토론을 한다. 학생들은 이번 토론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최종발언을 행하고 게임은 종료된다. (부록에 제시한 <표2>는 위 토론 모형을 각 단계별로 상술한 것이다.)

(4) 독서토론 후 논증적 에세이와 학술논문 쓰기, 논문 발표회

한 주제에 대해 3주간 강의, 토의, 독서토론을 마친 학생들은 본 과목이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완결인 학술적 글쓰기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는 핵심주장의 결정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유나 근거의 모색, 가능한 반박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를 조직화하여 글을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절차화한 다음에 그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게 하는 과정별 글쓰기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 ① 1단계: 발췌문에 대한 '쪽글' 제출 - 독해 및 요약하기 훈련
- ② 2단계: 독서토론용 단행본 고전에 대한 '쪽글' 제출 - 고급 독해 및 서평 훈련
- ③ 3단계: 주제 단위 논증 에세이 제출 - 3쪽 이내의 학술글 연습
- ④ 4단계: 학기말 학술논문 제출 - 한 주제 선택한 후, 제출 에세이를 심화시킨 논문제출
- ⑤ 5단계: 논문발표회 - 공개발표

IV. 맺음말.

오늘 우리는 '인간다움'에 대한 고전적 이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척 복잡한 인간적 환경에 살고 있다. 중세 신-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데 기여했던 인간-중심주의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인간을 동물의 한 종류로 '분류'한 이래 인간복제는 언제든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이제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신 작용을 재현할 기계장치의 출현도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게 되었다. 생물학과 뇌과학의 도움 없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나아가 생태주의의 도전은 이제 인간의 터전인 지구에서 인간의 우월적 지위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간다움의 학문적 터전인 인문학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는가? 고전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사상가의 저술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가?

예전에 사회과학의 공격에 맞서 겸허한 인문학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문학작품이나 철학작품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질문을 던진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오늘의 인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인문학은 그저 질문하고 대화하며, 그 과정에서 사리분별 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어설프게 과학을 흉내내면서 마치 최첨단의 학문의 길을 걷는 양 뿔내며 답을 내려던 의기양양한 인문'과학' 대신, 겸허하게 '인문학'의 지난했던 발자취를 반추하며 인문학의 이상을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인문주의의 후예인 교양(문화)주의에 담긴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교양의 폐기'보다는 '엘리트주의의 폐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트 양성 코스로서의 '소수의 인문학'을 폐기하자는 것이지, 인문학의 깊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인문학 독서토론' 과목은 그러한 목적에 어느 정도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다고 본다. 본 교과목은 고전 다이제스트 방식의 지식 전수나 소수를 위한 특권적 인문학의 길을 거부하였다. 죽은 지식을 기를 거부하는 인문학의 정수는 바로 사유와 비판의 힘에 있다. 학생들은 고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사상가의 사유 방식과 씨름하고 그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본 교과 담당자들은 기존 방식과 모형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록>

<표 2> 개방형 논제제시 독서토론 모형 설명

단계	주요 활동	단계별/활동별 세부 진행 방식
도입	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팀 <갑>은(1) 저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다음,(2) 저서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토의할 논제'를 2개 제시한다. * A팀이 먼저 발언, 이어서 B팀 발언. - 발언시간: 3분 이내
	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팀 <을>은(1) 상대팀의 제시 논제 2개에 대해 평가한 다음, (2) 저서의 이해와 심화에 적절한 토론 논제 1개를 선택한다. * A팀이 먼저 발언. - 발언시간: 2분 이내
	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논제/2논제 선정 방식 - A팀 제시 논제가 1논제, B팀 제시 논제가 2논제 * 숙의 - 2분간 팀별 숙의 ☞ 각 팀이 확정된 논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교수가 미리 준비한 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제1 논제 토론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논제에 대해 해당 저서 내용을 이용하여 자유 토론한다. - A팀이 먼저 발언한다. - 다음부터는 동의 후 확장, 비판 등 자유 형식으로 토론한다. * 발언시간: 총 12분. 팀당 최대 8분까지 사용 가능 ☞ 교수 개입 여부: 교수는 해당 논제와 관련하여 각 논제 토론 후반부에 보충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제2 논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은 위와 동일 * B팀이 먼저 발언
논제 심화	심화 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는 미리 준비해 둔 '심화논제 중 하나'를 제시한다. - 심화 논제로는 저서의 핵심 내용을 현실 조건(경험, 역사 등)에 연결시켜 적용해 보는 것이 적절하나, 1/2논제 토론 중 핵심 논리에 대한 토론이 미진할 경우는 이해/비판 논제도 가능. - 교수는 미리 다양한 논제를 준비해 둬
	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팀은 2분간 심화논제에 대해 숙의한다.
심화 논제 토론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팀부터 발언을 시작하고, 형식은 1:2논제 토의와 같음
최종 발언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팀 <갑>은 전체토론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저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최종 진술한다.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언 시간: 2분 이내- B팀부터 발언 | |
|--|--|--|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
용할 수 있습니다.